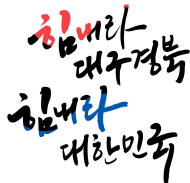
 금융위원회	보 도 해 명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4.27.(월)	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0)		담 당 자	권 민 영 사무관 (02-2100-2991)	

제 목 : ‘대출여력 늘린다더니...2금융권 총량규제 되레 강화’ 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

[기사(4.27일자 조선비즈)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- ☐ 조선비즈는 4.27일자 「대출여력 늘린다더니...2금융권 총량규제 되레 강화」 제하 기사에서,
- “27일 금융권에 따르면,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2금융권에 올해 지켜야 할 대출 총량규제 지침을 내려보냈다.”
 - “그런데 최근 2금융권에는 작년보다 강화된 부채 총량규제 지침이 전달됐다.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작년에는 대출 증가율이 7%를 넘지 않으면 됐는데 올해는 4%로 낮아졌다. 여신전문금융업계도 비슷한 수준으로 총량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.”
 - “특히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출 총량규제 지침과 함께 개인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증가율을 9.5% 이내로 관리하라는 별도 지침을 전달했다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현재 2금융권을 포함하여 전 금융권이 대출 만기연장, 이자 납입유예,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자금 애로에 대응하고 있는 바,

- 대출 총량규제 여부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추이를 보아 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, 현재까지 총량규제 지침을 2금융권에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.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